



배종훈의 명상가툼

절집에서의 시간

절집에 들어가 가방과 옷을 아무렇게나 내려두고 방문을 열었다. 시원한 산 공기를 깊게 마셔본다. 냄새, 맛 등에 크게 민감하지 않지만 확실히 도시의 공기와는 다르다.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소리, 밤새 소리, 풀벌레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지만 각각의 소리가 분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음악처럼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언제나 이렇게 절집에서의 시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내 앞에 펼쳐준다. 오늘은 어떤 카드를 고를 것이냐고 느긋하게 달이 묻는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심술긋은 겁쟁이와 한심한 도깨비

내 마음에 도깨비가 살아요

이제 이 마을에서 내 편은 한 명도 없다. 내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유일한 사람, 담임선생님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의 입술은 예전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차분하게 나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 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뿜어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 보겠니?" "저는 그냥 윤희가 태권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발차기를 하다가 실수로 얼굴을 찬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때리려고 했다면 왜 교실에서 그랬겠어요. 안 그래? 송윤호?" 눈이 마주치자 윤희는 얼른 시선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였다. 아직 코피가 멎지 않은 모양이었다. 윤희 티셔츠에도 교실 바닥에도 온통 피가 묻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왔다. "윤희는 태권도 가르쳐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정민이가 먼저 발차기하는 거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재민이가 말했다. 재민이 저 녀석은 어째서 자기 일도 아닌 일에 끼여드는 걸까. 따지고 보면 아이들과 사이가 나빠진 것도 모두 재민이 탓이다. 사사건건 참견하면서 웬지나 그리니 하고 사과를 해라 어쩌라 했다. 그렇게 질렸으면 법원 가서 관사질이나 하라지. 왜 이런 촌구석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리겠지. 나는 이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외톨이가 될 거야. 윤희가 학교에 터닝메카드를 가지고 왔다. 윤희 아빠는 윤희가 사달라는 것은 뭐든 사준다.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윤희는 제일 먼저 그걸 사 들고 왔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터닝메카드 트레이너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야, 송윤호, 그거 좀 줘 봐." 사실 터닝메카드 같은 거 관심도 없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리즈가 나왔지만, 엄마는 단 한 개도 사주지 않았고, 나는 만화만 몇 번 보았을 뿐 작동법도 잘 몰랐다. 그냥 아이들이 재미나게 가지고 노는 모습이 보기 싫었다. 자주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는 터닝메카드가 싫었고, 그걸 사주는 윤희 아빠도 싫었고, 무엇보다도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꼴 보기 싫었다. "어, 이걸 안 되는데, 이거 어찌 샀단 말이야." "누가 뭘 어쩐다고 그러니? 그냥 잠깐만 줘 보라고." "너는 맨날 잠깐만 달라고 해놓고 가져가서 안 주잖아." 재민이 녀석이 나섰다. 재민이가 나서면 일이 꼬인다. 나는 정말 멋진 발차기를 보여줄 테니 터닝메카드 트레이너를 높이 들고 서 있으라고 했다. 내 발이 거기까지 닿으면 장난감을 빌려주고, 닿지 않으면 지금까지 빌려왔던 장난감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장난감도 빌리지 않겠다고. 윤희는 달달 떨면서 트레이너를 한 것 치켜 올렸다. 그러고는 바보같이 내가 발차기



그림 강병호

를 할 때 점프를 해버렸다. 내 발은 윤희의 얼굴을 차버렸다. "약속대로 빌려 간 장난감을 모두 돌려줘. 너는 내에게는 장난감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윤희가 코피를 줄줄 흘리며 말했다.

재민이와 영재, 주희가 교실에서 나왔다. 윤희는 아직 교실에 남아 있었다. "선생님한테 모두 일러버렸나? 이제 보니 너희 모두 고자질쟁이였구나." 4학년은 모두 5명. 그중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치원 때부터 같이 다닌 친구들이었다. 그 애들 사이에 내가 낯 뜨겁게 없었다. 내가 전화 왔을 때 아이들은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항상 자기들끼리만 어울릴 뿐 나에게 같이 어울릴 여지를 주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게 다 짜증이 났다. 전교생이 스무 명도 안 되는 촌구석 학교도 짜증이 났고, 구정 물 줄줄 흐르는 얼굴이 까만 아이들도 싫었다. 구린내 나는 시골 공기도 싫었고, 다 쓰러져가는 외할머니 집도 싫었고, 밤늦게 퇴근해서 인상만 쓰는 엄마도 싫었다. "내가 왜 아이들을 괴롭히는지 알아. 그건 내가 겁쟁이기 때문이야. 겁쟁이인 걸 숨기려고 아이들을 겁주고 다니는 거지. 너희 집은 부자도 아니고 너 태권도도 잘 못 해. 너 그냥 망해서 시골로 전학 온 겁쟁이일 뿐이야." 재민이가 말했다. "겁이 나서 선생님한테 다 일러버린 주제에 누구 보고 겁쟁이래?" "겁쟁이가 아니면 증명해 봐." 마을 끝 산 아래에 무당집이 있었다. 폐가가 된 지 오래된 곳이라서 날이 어두워지면 어른들도 지나길 거리가 없는 곳이었다. 재민이는 그 집 앞으로 밤 아홉 시까지 나오라고 했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집에 혼자 들어가 마당에 있는 단풍

나무에 묶어놓은 몽당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그동안 내가 우리에게 했던 일을 선생님께 모두 말할 거니까. 그리고 전교생이 널 겁쟁이라고 놀릴 거야." "내가 가져오면?" "그동안 내가 우리에게 했던 나쁜 일들을 모두 잊을 거야. 그리고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거야."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선생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일어나면 학교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이 끝난 후 교문 앞에서 있던 주희가 나를 말끄러미 보며 말했다. "너 정말 무당집에 갈 거니? 아이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을 거야. 정민이 네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무당집엔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거기엔 도깨비가 살아." "저것말. 도깨비 같은 게 어디 있어?" "문방구 아저씨는 어릴 때부터 대머리였어. 아저씨가 그 집에 살았을 때 도깨비가 머리칼에 불을 놓았대. 공급하던 문방구에 가서 물어보렴. 아저씨 어릴 때 찍은 사진도 보여주실 거야." 도깨비나 귀신같은 거 정말 무섭지 않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다 부서지고 허물어져서 폐가나 다름없었다. 엄마는 일 끝나고 열한 시가 다 되어야 돌아오고, 나는 폐가가 다름없는 집에서 혼자 지냈다. 원앙어선을 탄다고 나간 아빠는 몇 개월째 전화도 편지도 하지 않았다. 겨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나 빼죽 튀어나와 있는 입, 풀이 난 이마, 불만이 가득한 눈, 부여있는 볼.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것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콧잔등에 주름을 잔뜩 잡아서 사냥고 심술긋은 표정을 지었다. "헛, 도깨비 같은 거 나올 테면 나와 보라지!" <계속>

Advertisement for Mahayon Travel (마하연여행사)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Myanmar, China, and other regions. Includes contact info (02)365-7747, website www.mahayon.com, and various tour options like 'Chinthee Shrine Myanmar' and '4 Great Mountains China'.